

# ‘와토스코리아’ 장성에 새 둥지 틀었다

〈양변기 부품생산 국내 1위 업체〉

116억 들어 동화농공단지에 공장 준공 본격 가동

코스닥 상장사 인천 본사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양변기 부품생산 1위 업체인 와토스코리아(이하 와토스코리아)가 장성에 둥지를 틀었다.

와토스코리아는 3일 오전 11시 장성군 동화면 동화전자농공단지에서 공장 준공식 및 창사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양수 장성군수,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와토스코리아는 올해 초 장성에 생산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인천에 있던 본사까지 이전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새 공장은 대지 3만955㎡에 건물면적 1만789㎡ 규모로 116억원이 투입됐다.

와토스코리아는 양변기와 세면대 등 화장실 위생기에 사용되는 절수형 부품 전문생산업체로 연매출이 180

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다.

와토스코리아는 상반기 안에 9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 뒤 점진적으로 18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품질관리, 금형가공, 생산관리, 일반 생산직 등을 새롭게 충원한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은퇴인력, 귀농 귀촌인 등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와토스코리아는 장성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100여개의 일자리와 매년 5~10%의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60여개 협력업체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와토스코리아는 총자산 563억원 중 순자산이 505억원으로 부채비율



이 11.4%에 불과한 건실한 증권기업으로 무차입(無借入) 경영으로도 잘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유동자산도 350억원, 앞으로 10년간 매년 35% 이상의 세전 수익률이 예상된다.

세계상품코드(UPC) 규격 인증을 비롯해 112건의 국내·외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절수기발명 박사’로 잘 알려진 송공석 사장은 초등학교만 마친 뒤 17

살에 혈혈단신으로 상경해 맨손으로 성공시대를 연 국내 요업업계의 산증인이다.

송 사장은 “고향 전남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며 “지역 인재를 채용해 이들에게 주거와 교육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송지면 대죽리의 조개체험 현장.

## 바지락 캐고, 전복따고... 올 여름 추억 만들어요

해남 정보화 마을 ‘추억쌓기 여행지’로 각광

해남지역 정보화마을이 여름 휴가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추억쌓기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북평면 동해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김치정보화 마을은 김치와 물놀이 체험지로 인기가 높다. 단체예약(20인 이상)시 김치만들기를 할 수 있고 1인당 5000원을 추가하면 바지락캐기도 가능하다. 올해는 물놀이체험장에 놀이시설을 보강하기도 했다.

삼산면 두류산 버섯정보화 마을에는 염색체험과 떡메치기, 버섯요리 만들기 등이 있다. 한옥민박촌이 잘 형성돼 있는 이곳은 대흥사가 인근에 위치해 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망갈바다 시원함에 더위가 쏙

가시는 망갈 송호 정보화마을에서는 그물과 양쪽 끝을 잡고 고기를 낚는 ‘취리질’(5인 이상)과 돌을 쌓아 만든 ‘돌샬’ 등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전통 낚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바지선 낚시체험(2인 이상)도 운영중이며, 올해부터는 전복양식체험장을 활용해 전복따기와 양식장 먹이주기 등 전복체험도 운영할 계획이다.

살아있는 생태교과서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오산리 어촌체험마을도 인기다. 해안에 설치된 수변데크와 900여m의 갯벌 탐목도를 따라 누구나 쉽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으며, 회귀고동과 쟁쟁어, 칠게 등 다양한 어패류를 관찰할 수 있다. 갯벌체험은 어패류 관찰과

더불어 갯벌에 직접 들어가 고동과 바지락 등을 잡아 볼 수 있다.

조개캐기로 유명한 송지면 대죽리도 5일부터 체험장을 운영한다. 썰물때면 마을 앞 대섬까지 드러나는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인근에 송호 해변과 망갈 전망대 등이 위치해 있어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많이 찾는다. 조개 체험 등은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장화와 호미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잡은 조개는 각자 가져갈 수 있다.

북평 신흥마을은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은어 회귀전으로 유명한 신흥마을은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유어장으로 마을 인근 공유수면을 활용해 낚시 체험장을 조성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나주 다도中 동문들의 ‘모교사랑’

“폐교 위기 극복하자” 2000만원 장학금

나주시 다도면 다도중학교 총동문들이 모교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3일 다도중 총동문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 총동문화사무실에서 모교 살리기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 김종열 총동문화회장 및 류점주 재경회장, 김성에 교감, 나병호 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2000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해 모교에 전달했다.

특히 후원의 밤 행사에서 강연술(3회·운송업) 동문과 강희식(3회·나주산림조합장) 동문은 700만원과 200만원을 흔쾌히 기

부해 모교사랑을 과시했다.

45년 역사의 다도중은 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나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줄어 남광중 분교로 편입되면서 어렵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유덕찬 총동문화회장 이사장은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모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등 발전방향에 대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및 연구 활동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 담양산단 조성 이끌 ‘담양그린개발’ 개소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담양그린개발(주)’(대표 차상준)의 개소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담양군은 지난 1일 담양을 백동리 ‘담양그린개발(주)’사무실에서 최형식 군수를 비롯해 전정철 군의회 의장, 출자회사 관계자, 산단조성지 인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과 함께 현관식을 가졌다.

담양그린개발(주)은 담양군 20%, 현대엘코 25%, 한국투자증권 19%, 현대엘코 25%, 한곡투자증권 19%, 위더스PMD 24.9%, 해동건설 6%, 하나다울신탁이 5%의 지분을 출자에 설립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인근 58만 8000㎡ 부지에 총 5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담양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녹지시설 등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식품 등 친환경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담양일반산업단이 조성되면 현대엘코(주)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부품생산 전진기지 등 첨단산업유치로 총 7904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62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맡을 특수목적법인 담양그린개발(주)이 지난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업비 566억원이 투입되는 담양일반산단은 오는 2015년 완공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 월출산에 토종 거북 ‘남생이’ 산다



월출산에서 발견된 남생이.

얼굴 옆면 노란무늬 선명

국립공원, 서식지 발견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 2급으로 지정된 남생이(천연기념물 453호) 서식지가 최근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남생이는 물과 땅 양쪽을 오가며 사는 대표적인 토종 민물 거북이다.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중국산 남생이가 대량으로 방사돼 토

종이 사라지고 있다.

남생이는 20~30cm 크기로 중국산과 달리 등껍질이 진한 갈색을 띠고 얼굴 옆면의 노란 무늬가 선명하다.

월출산국립공원에는 올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개선과 복원사업을 벌여 4월에 남생이 1개체를 발견했다.

지난달에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합동으로 서식지 정밀조사에 나서 남생이 은신처와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했다.

유기룡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한국산 남생이 서식지 발견은 월출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조사와 연구를 통해 남생이 서식지 보전과 복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대천인생

## 파란만장 굴곡진 주인공들의 공감토크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박미선

조형기

현미

김학래

송도순